

42번째, 농기구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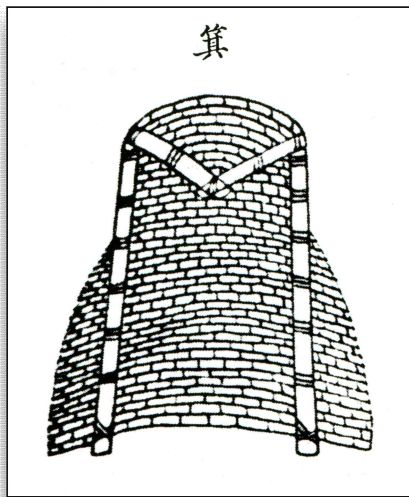
곡식을 고르는 연장 ‘키’



○ 편집 및 발행 : 농협중앙회 농업박물관 ○ 발행일 : 2011.9.1
○ 본 자료의 저작권은 농업박물관에 있으며, 무단도용 및 전재를 불허합니다.

1. 키의 개념과 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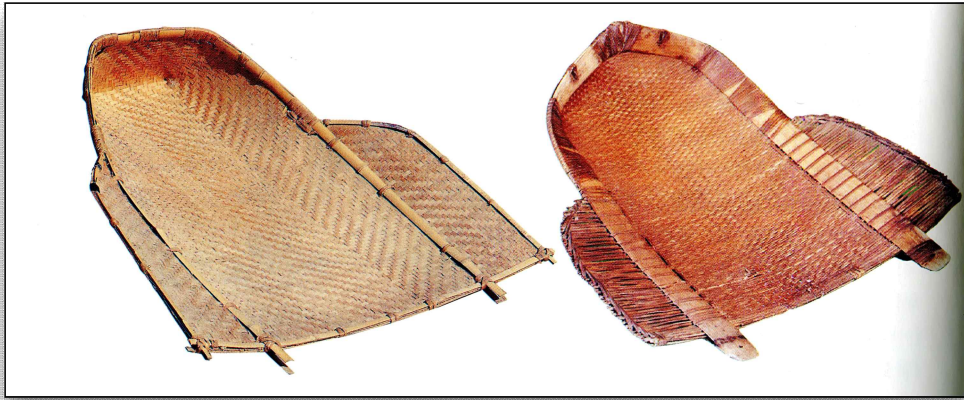
키는 곡식 따위를 까불러 쭉정이나 티끌을 골라내는 도구이다. 언제부터 농가에서 '키'가 이용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15세기에 편찬한 우리나라 최초의 농서인 《농사직설(農事直說)》이나 《산림경제(山林經濟)》에는 '키'라는 용어가 나타나는데, 이로 보아 그 이전 시기부터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농사직설》이나 《증보산림경제》에는 '키(簍)'로, 《훈민정음》(해례본)에는 '키(箕)'로 표기되어 있다. 지역에 따라 '칭이(경상남도 영산)·'치(강원도 도계)·'챙이(전라남도 구례·보성)' 등으로 불린다.



2. 키의 형태

키는 고리버들이나 대로 만드는데 남부지방에서는 대로 엮은 것을 많이 쓴다. 고리버들이나 대를 남작하게 쪼갠 오리로 앞은 넓고 편평하며 뒤는 좁고 우긋하게 짜는데, 양 앞쪽에 작은 날개를 붙여 바람이 잘 일어나게 한다.

대오리나 고리버들을 바닥 나비가 50~70cm, 길이가 70~100cm의 크기로 어긋매끼게 엮어 짜고 둘레는 얇은 버드나무 판자를 안팎으로 대고 칠냉쿨이나 소나무 뿌리로 단단히 돌려 감아 고장한 형태가 일반적이다. 바닥의 안쪽을 움푹하게 하여 얼마정도의 곡식이 담길 수 있게 하였다. 고리버들로 만든 키보다는 대오리로 만든 것이 크고, 쓰이는 용도에 따라 서로 크기가 다양하다.



<대나무 키(좌)와 고리버들 키(우)> ©박호식

3. 키의 용도

키는 바람을 이용하여 무게 차이에 의해 알곡과 검불이 구분되는 원리를 차용한 것이다. 곡식을 담고 까부르면 가벼운 것은 날아가거나 앞에 남고 무거운 것은 뒤로 모여 구분되는데, 이를 '키질'이라고 한다. 또, 곡식 등에 섞인 불순물을 고르기 위하여 키에 담아 높이 들고 천천히 쏟아 내리는 것을 '키내림'이라 하고, 키를 나비 날개치듯 부쳐서 바람을 내는 것을 '나비질'이라 한다.

탈곡을 마친 벼는 키를 이용하여 까불러서 검불을 제거하고 알곡을 쫓게 된다. 연자방아·물레방아·디딜방아 등으로 껍질을 벗긴 알곡도 키를 이용하여 검불을 날리게 된다. 이후에는 풍구가 개발되어 대량으로 겨나 티끌을 제거하게 되었다. 그러나 키가 조작이 간편하고 편리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용하는 농가도 매우 많다. 특히 적은 양의 알곡을 털어낼 때는 키의 유용성이 뛰어나다.



<사계산수도> 중 부분



<패문재경직도(佩文齋耕織圖)> 중 부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경직도> 중 부분

4. 키와 풍습

민간에서는 오줌을 잘 가리지 못하는 어린이에게 키를 씌워 다른 집으로 소금을 얻으러 보낸다. 그러면 상대집에서는 그 까닭을 알아차리고 소금을 뿌리고 키를 두드리면서 “다시는 오줌을 싸지 마라.” 하고 소리친다. 이렇게 하면 나쁜 버릇이 고쳐진다고 믿고 있다.

경상남도지방에서는 정초에 처음 서는 장에 가서는 키를 사지 않는다. 키는 까부는 연장이므로 복이 달아난다고 믿기 때문이다. 만약 모르고 사온 경우라도 집안어른이 부수어버린다. 제주도에서는 설달그믐날 키점(箕占)을 친다. 부엌을 깨끗이 치우고 키를 씻어서 엮어 두었다가 새해 아침에 그 자리를 살펴본다. 쌀알이 있으면 쌀이, 조가 있으면 조가 그해에 풍년이 들 것이라고 한다. 또 윤달에 주부가 마루에서 마당 쪽으로 키질을 하면 집안이 망한다고 믿는다. 이는 대문에 그 집을 지켜주는 문전신(門前神)이 있어 그쪽으로 키질을 하면 그 신을 내쫓는 격이 된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국립국어원.

김광언, 『한국의 농기구』, 문화재관리국, 1969.

서유구, 『임원경제지』 본리지3, 2009.

한국농업기계학회, 『한국농기구도감』, 2001.

『한민족역사도감 생업』, 국립민속박물관, 2008.